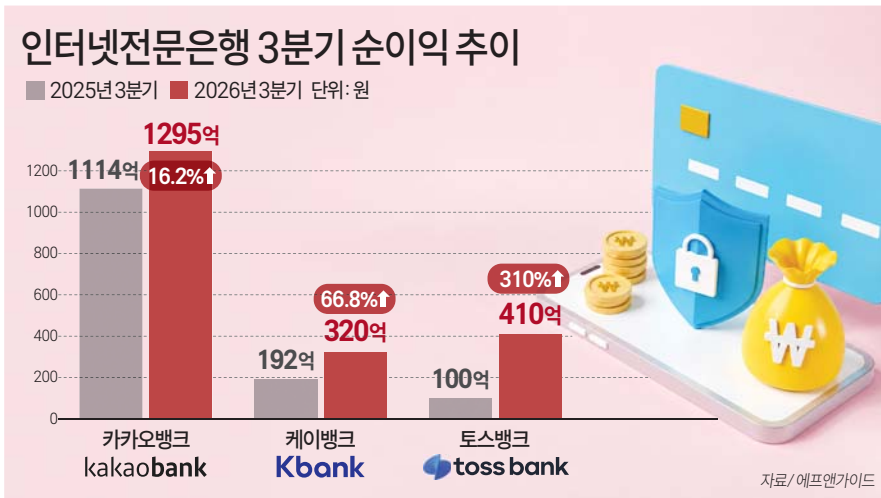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도… 인뱅 3사, 3분기 호실적 예고

카카오뱅크, 당기순익 1295억
전분기비 줄고, 전년대비 16% ↑
케이뱅크, 대출 성장률 5.5% 확대
토스, 상반기 당기순익 ‘역대최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3분기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실적이 둔화할 전망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대출 규제에 따른 성장 부담 속에서 수익성 개선 여부가 실적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2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4억원)보다 1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분기(1408억원)와 비교하면 8.0%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성장 둔화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강승건KB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카카오뱅크의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을 1251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시장 컨센서스를 12.0% 밑도는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가계대출 규제에 대출 성

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비대면 전 금융권 대출 조회 서비스 확대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4분기에는 대출 성장세 회복과 순이자마진(NIM)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4분기 대출 성장률 제고 기대가 유효하고 예대율 개선을 통

한 NIM의 추가 개선, 그리고 2027년 비이자이익의 개선 가능성은 기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케이뱅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억원)보다 66.8% 증가할 전망이다. 전분기(269억원)와 비교해도 19.1% 늘어난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출 성장세와 순이자마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전배승LS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소호대출의 고 성장에 힘입어 대출 성장률이 5.5%로 확대됐으며, 순이자마진도 전분기보다 4bp(1bp=0.01%p)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부담과 비이자이익 정체는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전 연구원은 대손율이 여전히 100bp 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호대출의 담보·보증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지표의 추가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

석했다. 향후 신규 상품 출시와 고객 기반 강화가 수익성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스뱅크가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5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도 41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출 규제에 은행권의 성장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토스뱅크가 3분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과거처럼 대출 규모를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대출 성장뿐 아니라 건전성 관리와 비이자이익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청년층 취업자 3명 중 1명 임시·일용직

한은,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임시·일용직 32.6%, 전년대비 하락
‘고용 질 지수’ 평균 94.7로 낮아져
신규채용 줄여 청년층에 충격 집중

청년층이 취업 눈높이를 낮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임시·일용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통로도 좁아져, 경기가 회복해도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32.6%였다. 지난해 33.0%보다는 낮지만 2022년 30.7%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용 안정성과 근로시간, 실직 위험 등을 종합한 청년층 ‘고용의 질 지수’는 2023년 1월~올해 9월 평균 94.7로, 과거 청년고용 부진기인 2014~2019년 평균 101.1을 밑돌았다. 2010년 1월~올해 9월 가운데 코로나 19 시기인 2020~2021년을 제외한 전체 기간 평균을 100으로 놓은 지수다.

올해 1~9월 청년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

준 6.6%로 과거 부진기 평균 9.4%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과거에는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다리며 실업 상태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임금과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면서 부진이 고용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경에는 IT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있다. 반도체 등 IT제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상용직 채용은 크게 늘리지 못하는 반면, 채용 비중이 높은 비IT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성장세가 약해졌다. 기업이 기존 인력의 고용과 임금을 조정하기보다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충격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확산도 경력직 중심 채용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산업에서 신입이 맡던 기초 실무·조사·분석 업무의 일부가 자동화되면서, 기업이 신입을 육성하기보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일자리 간 이동성도 약해졌다. 23~28세 비재학생을 추적한 청년패널 분석에서는 1차 노동시장의 동일 일자리 유지 비율이

높아진 반면, 미취업자의 진입과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은 줄었다. 이 분석에서 1차 시장은 민간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2차 시장은 그 밖의 민간 임금근로 일자리다. 다만 과거와 최근 조사 패널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해도 실제 진입은 어려웠다. 청년패널의 2021~2023년 조사에서 대기업 취업을 원한 23~28세 비재학생 미취업자가운데 이듬해 1차 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2.1%였다. 27.8%는 2차 시장에 취업했고, 60.0%는 실업·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렀다.

한은 연구진은 청년들이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잃으면 노동수요가 살아나고 고용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책으로 IT산업의 성과가 연관 산업과 내수로 퍼지도록 하고, AI 교육·훈련을 실제 직무수요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과 고용계약 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은행 기업예금 급증, 가계자금 증시 이탈

기업 원화예금 813조, 전년비 18% ↑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 가계예금 감소

은행권의 기업예금이 813조원으로 급증한 반면 가계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기업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는 사이 가계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기업의 거액예금과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자금조달 안정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은행 수신 구조의 변화와 안정적 유동성 확보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기업 원화예금은 81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했다. 전체 원화예금 2268조원에서 기업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9%에 달했다.

기업예금이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유입되면서 기업 원화예금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계예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 원화예금은 올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8월에는 3.5%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 자금이 증시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해 5월 61조원에서 올해 9월 99조원으로 36.9% 증가했다.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은행권의 저원가성 예금 기반도 약화하고 있다. 지난 8월 핵심예금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0.5%로 둔화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예금을 제외한 저축성예금은 7.1%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은행권, 4분기 기업·가계 대출문턱 높인다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올해 4분기 국내은행들이 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등의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은 실수요 자금에 대한 총량관리 방식 조정 등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보되면서 전 분기 수준의 대출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1로, 3분기(-20)보다 9포인트 높았다.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기조가 이어지되 그 정도는 전분기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대출태도지수는 -100~100사이에서 산출되며 음수는 심사 강화, 양수는 완화 방향을 나타낸다.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주택대출의 태도지수는 3분기 -17에서 4분기 0으로 높아졌다. 주

택 관련 대출의 심사 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지난 8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보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 자금을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상향 조정한 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일반대출의 태도지수는 -28에서 -8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대출은 대기업 0에서 -8로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19로 전분기와 같아 모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의 대출수요는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14로 3분기와 같았고, 일반대출은 17에서 3으로 낮아졌지만 증가 방향을 유지했다.

/김주형 기자

KB손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KB손해보험은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4급 ▲AI-데이터 ▲경영지원 ▲상품·계리 ▲자산운용 ▲일반보험 ▲영업관리 등 6개 부문과 6급 영업지원(지점 매니저)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사지원서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 23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채용에서는 AI-데이터 분야 인재 확보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화 등 전사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직무별 관련 학습·프로젝트 경험과 보험·금융·디지털 분야 전문 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한다.

4급은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AI 역량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및 채용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김주형 기자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ETF 추가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투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하나 MPM(odel Portfolio) 구독서비스’에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를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하나MP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시장 동향 등을 카카오톡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기존 펀드 중심이었던 포트폴리오에 ETF가 추가됐다.

/나유리 기자